

과거 · 현재 · 미래 다면적 춤의 언어로

(사)금파문화보존회(이사장 김지호)는 금파무용단 창립 55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미소 II, 겨울햇빛'을 오는 29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공연한다. 한국 전통춤의 원형을 바탕으로 창작 춤의 무한한 확장을 위해 2007년 제작된 천년의 미소는 이후 금파무용단의 대표공연으로써 거듭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과거·현재·미래를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춤의 언어로 승화하고, 새로운 공연미학을 창출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금파선생님의 안무작 중 하나인 '겨울햇빛'은 1980년 제2회 대한민국 무용제 참가작으로 이날 무대에선 리메이크 버전 '겨울햇빛-소리 없이 빛나는 희망의 빛'으로 만날 수 있다.

작품은 사람이 전제 되어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법, 인간성에 대한 성찰,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다.

이와 함께 샅풀이춤의 미학적 특징인 한과 슬픔의 심상을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킨 김지호 무용가의 '호적구름샅풀이춤'을 비롯해 춤 명가에서 처음 춤을 접하는 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금파류의 '입춤', 춘향전 중 '오작교의 추억', 놀이매가 넓은 마당을 놀이판으로 하여 판을 짜서 노는 춤 '판놀음'을 춤사위로

▶ 금파무용단 창립 55주년 기념 '천년의 미소 II, 겨울햇빛'

금파선생님의 안무작 리메이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법 등 그려 '입춤' 등 춤사위로 풀어내 29일 소리문화전당서 공연

풀어낸다.

김지호 이사장은 "춤 철학과 문화지성의 발로에서 출발한 '천년의 미소'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인 춤 문화·예술브랜드로의 도약과 문화상품으로 성장을 향한 선언적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금파무용단을 향한 진심어린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문의 금파문화보존회 010-4735-5606, 010-4656-3227.

/정해은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연말 맞아 불우이웃에 생필품 등 전달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는 센터 내 교육생 동아리 및 화요간담회 회원과 함께 따뜻한 온정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나눔' 행사를 지난 23일 진행했다.

센터는 전주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의 어려운 소년소녀·한부모·조손가정을 방문하고, 방한복 및 학용품, 간식 등을 150여명에게 전달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센터는 화요간담회 회원들이 기증한 생활용품과 프리마켓 운영을 통한 불품판매 수익금으로 전달물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신수미 센터장은 "나눔 행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동참하고 실천하는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역사회 공헌 관련 문의는 063-254-3816. /정해은 기자

'공연스토리, 내가 만든다' 공모작 6편 선정

전북문화관광재단 심사 통해... 시상식은 내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 전북이야기 '공연스토리, 내가 만든다'의 공모 심사 결과 최종 6편(대본 2편, 시나리오 4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6편의 선정작들은 지난 10월 31일~12월 15일 전북문화관광재단 상설공연추진단에 접수된 총 17편(대본 5편, 시나리오 12편) 중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2017년 새만금상설공연의 신작을 공모

하는 대본 부문에선 최우수작을 내지 못했으며, 가작에는 박시현 '水中 심명던'과 민석준 '심청이야기(가제)'가 선정됐다. 수상작은 각각 2백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전북문화관광재단 시나리오 공모 부문에선 최연희 '두 선비, 370일의 기록' 박영대 '꿈꾸는 세계로' 최성진 '꿈에-달빛 이저러질제 구름 강물에 떠나고' 이원희 '강씨에 랜케-어진이여, 감사합니다' 등 4편이 선정작으로 뽑혔다. 이들 작

품에는 백만원의 상금이 각기 주어진다.

시나리오 공모는 스토리를 완전한 대본 또는 시나리오 등으로 완성하는 작업을 진행, 2017년에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는 한국시나리오 작가조합 손정우, 동국대학교 민병록 명예교수, 한국영화감독협회 김익서, (사)전주영상위원회 정병우,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광병창 교수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심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전북예술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무용대상' 군무 대상에 '별의 여행자'

2016 대한민국 무용대상' 군무 부문의 대상에 백현순무용단의 '별의 여행자' (안무 백현순)가 선정됐다.

한국무용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3일 오후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공동주최한 이 시상식에서 이같이 선정됐다.

백현순무용단은 대통령상 상장과 창작활동보조금 2000만원을 받았다.

군무 부문 우수상은 윤수미무용단의 '귀신 고래' (안무 윤수미)가 차지했다.

솔로 & 듀엣 부문 최우수작은 조윤라의

'왈츠#8 기억의 시간', 이 부문 우수작은 정보경의 '각시'에게 돌아갔다.

군무 부문 베스트7으로는 '별의 여행자'와 '귀신 고래' 외에 유장일발레단의 '트리스티스(부제-솔프회귀)' (안무 유장일), 윤명화무용단의 '사면-상상과 치유' (안무 윤명화), 장유경무용단의 '시인의 강 - 낙동강 천삼백리를 품에 안다' (안무 장유경), 장은정무용단의 '비밀의 정원' (안무 장은정), 황재섭무용단의 '트리오브라이프' (안무 황재섭)이 뽑혔다.

솔로&듀엣 부문 베스트 5으로는 '왈츠



#8 기억의 시간'과 '각시' 외에 박중현 '머미(Mummy)', 배경혜의 '울곡(?곡)', 조인호의 '홀로 시나위'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무용대상은 매년 그 해 최고의 무용 창작 예술가 및 작품을 발굴하는 시상식이다. /뉴시스

▶▶ 공연 & 전시 ◀◀

전주시립예술단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전주시립예술단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인 9번 '합창'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다.

'환희여, 아름다운 신의 불꽃이여, 낙원의 딸들이여/ (...) 관습이 준엄히 길러놓았던 것을 너의 마법은 다시 결함하느라/네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는 곳에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환희의 송가 중에서-



베토벤의 합창 중 4악장 중간에 나오는, 환희의 송가는 독일 극작가이자 시인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인류 평화·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베토벤은 성악을 교향곡에 최초로 도입, 마지막 4악장을 작곡하여 그 당시 교향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이 곡의 원본 악보는 음악작품 중 최초로 2001년 UN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날 공연에선 최희준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한가야, 소프라노 남혜원, 메조소프라노 이아경, 테너 진성일, 바리톤 정복기, 전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협연을 펼치며 '합창' 곡의 환희와 인류애를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2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 **공연티켓은 R석(1층)1만원 S석(1층)7,000원 A석(2층)5,000원.

**문의 063)281-2748. /정해은 기자

다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12월 26일>



▷쥐띠

48년생: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60년생: 먼저 내보내면 후에 돌아오니 아까는 것이 지나쳐 인색하게 되면 원망을 듣게 되니 주의하라.
72년생: 뒷사람의 덕이 따르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라.
84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된다.



▷소띠

49년생: 분주다사한 운이나 인덕이 따른다.
61년생: 서로 웃고 있으나 속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의견충돌이 잘 되지 않는다.
73년생: 덕을 쌓아간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친다.
86년생: 약속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이다.



▷토끼띠

51년생: 동간 등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급하게 서두를수록 점점 틀어지니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려라.
75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니 둘러보기가 필요한 운이다.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



▷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남 기회는 생긴다.
64년생: 일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나 정작 본인은 흠족하지 못하니 욕심을 버려라.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은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미리 대비하라.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뱀띠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나,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으니 믿고 의지하는 것은 삼가라.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77년생: 모든 하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말띠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있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쟁은 사람도 잃고 기분만 상하게 만들 뿐이다.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



▷양띠

55년생: 아끼려다가 인심을 잃으니 먼저 내보내면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7년생: 횡재를 바라면 재난이 발생한다.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발이 나는 운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91년생: 원형은 불리하나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이니 열심히 노력하라.



▷원숭이띠

56년생: 귀인이 돕고 하늘이 도우니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임신: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지 말라.



▷양띠

57년생: 총타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굴곡이 따른다.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게 된다.
93년생: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



▷개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작은 것은 이루어지는 운이다.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이다.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건강에도 주의하라.



▷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는 이루어지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59년생: 지나친 의욕은 실패를 부른다.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